


### 공동체 소식



**사순 제3주일**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2월 기도지향

- + 류기범 요셉, 신혜경 마리아 가정
- + 장시우 시몬, 장남순 올리나나 가정

\* 3월 기도지향은 본당 구역모임 활성화와 냉담가정을 위하여입니다.

#### 3월 첫주간 미사 안내

- 일시: 평일미사-3/1(화) 저녁7:30, 3/3(목) 오전10:00
- 예수성심 신심미사-3/4(금, '십자가의 길 기도'),
- 성모신심-3/5(토)

#### 자비의 특별희년 기도

- 일시: 3/6(주일) 오후3:00
- 장소: 성당(Holy Trinity Chapel)

#### 총구역회 모임(구역장 모임)

- 일시: 오늘(2/28) 교중미사 후
- 장소: 나자렛관(본당회관)

#### 애찬조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 내용: 본당의 모든 인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애찬조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새로 편성된 애찬조의 적용은 부활 대축일 때부터 하겠습니다.

#### 캔사스대교구 '자비의 특별희년 나눔초대 -Archbishop's Call to Share'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미 많은 신부님들이 동참하고 있고,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19	215	175	117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정예찬 미카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다음주일	이원준 요한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채린 소피아	김준영 요셉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주	최은미 아네스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안현숙, 김화년, 정명숙, 조지연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2/21	69명	308불	200불
(총 1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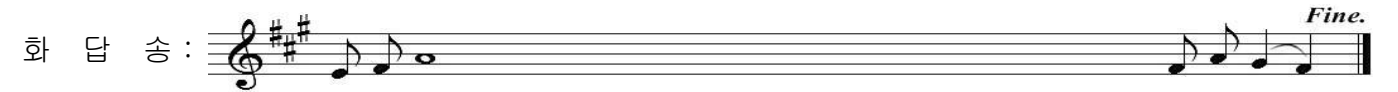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 성화해설

####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피에테르 데 그레베레, 1635년, 유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담화(요한 4,1-42 참조)가 그레베레에 의해 잔잔하게 그려졌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라고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신을 믿고 당신 안에서 샘솟는, 살아있는 물을 길어 마시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믿음의 문 2항)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1-8ㄱ.13-15  
< ‘있는 나’ 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0,1-6.10-12  
<모세와 함께한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9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 쉐 마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다



오늘 2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듣고 있다면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종말 때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덜대며 계속 악을 탐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슬픈 종말이 올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일깨우는데 마치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아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모습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에 가득 차 하느님께 대들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를 향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미 심판받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세례를 통해 구원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오로가 말하듯이 (로마 7,7-25) 죄악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여전히 회개의 시간과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순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화답송이 노래하듯이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화답송은 주님이 자비로우심을 기뻐하는 이의 노래이고 오늘 1 독서는 그런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모양으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서네’입니다. ‘시나이’라는 말도 이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신명 33,16에서는 이를 ‘덤불’이라고 번역하며, 주님을 직접 ‘서네’, 곧 ‘덤불 속에 사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네’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작은 잎이 무성하며, 가지가 매우 얇은 식물인데, 불꽃만 달아도 금방 타 버릴 것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꼭 이 집트의 폭압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 탈출한 뒤 광야를

떠돌던 나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서네, 곧 덩굴 속에 사시는 주님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분, 광야에 사시면서 불모지에서 약한 존재들 사이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네가 불에 금방 타버리는 덩굴로 된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도 그 식물을 태워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불에 탈만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태워 없애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여기곤 했습니다. 스스로 덩굴처럼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느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당신은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으시며,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 하느님 이름은 바로 “야훼”, 곧 “있는 나”입니다. 계시지 않는 어떤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다”라고 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라고만 말하면 누구나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주님께서 언제나 떨기나무를 태워버리지 않는 불꽃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의 자비하심에 기뻐합시다. 그렇게 매일을 그분과 함께 살아갑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종말을 잘 깨어 준비하는 길이며, 사순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사무엘 예언자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불러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벤야민 지파 중 사울이 뽑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임금님 만세!” 하고 소리 질러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불량한 자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다. 그러던 중 사울이 왕으로서 소질을 인정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울은 거릿소 한쌍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0,17-11,7

사울은 결국 암몬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줄행랑을 쳤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였습니다.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죽여 버리겠으니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날입니다. 이런 날 아무도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온 백성은 길갈로 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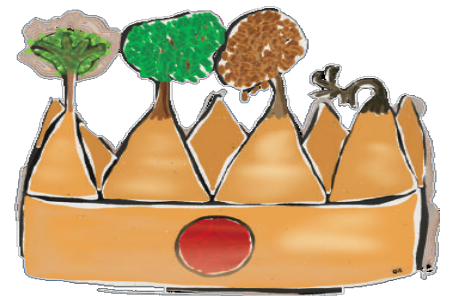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1,8-15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백성들은 사울을 하느님이 보내주신 임금으로 섬겼습니다. 그 후 필리스티아인들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필리스티아인들의 병력이 막강하여 이스라엘군은 사

기가 몹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사울은 기다리다 못해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자신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바로 사무엘이 나타나 무엇이래 이야기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3,1-14

사울은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많은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사울은 하느님에게 버림을 받고 더욱더 궁지로 몰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민심을 잃고, 가장으로서도 가족들의 냉대를 받고, 스승 사무엘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의 영웅이었고 큰 승리를 얻은 용사였지만, 신앙적으로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했던 사울 왕이지만 민심을 잃고 하느님의 징벌을 당하는 등 끝없이 추락하는 그의 삶은 우리 삶에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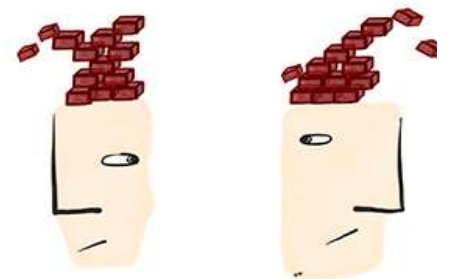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묵상

## 남의 일

잊지 마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일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일도  
남의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루카 13,5)

- 임의준 신부